



## 많이 더 많이

김은혜 지음 | 하나그림 | 홍성사

창작 동화책 『많이 더 많이』는 ‘유리새’, ‘많이 더 많이’, ‘한 달이 지나면’, ‘사랑하니까’ 네 편의 짧은 이야기로 이뤄졌다.

첫 번째 이야기에는 신비로운 빛을 뿜는 ‘유리새’가 나온다. 유리새는 신비로운 외형뿐만 아니라 듣는 이를 위로하고 새 힘을 주는 특별한 소리까지 갖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유리새의 소리에 힘을 얻으며 살아간다. 하지만 이런 유리새와 마을 사람들의 평화로운 공존은 금세 깨진다. 사람들 마음에 유리새에 대한 질투와 시기가 생겼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유리새처럼 자신들도 빛나기를 원해 온갖 장신구로 치장하지만 유리새처럼 빛나지 않는다. 그러자 그들은 자신이 빛날 수 없다면 유리새도 빛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유리새에 대한 질투와 시기가 커지면서, 유리새는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아는 소년에게서까지 배신을 당한다.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는 유리새를 외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리새가 금기하는 어둠의 숲으로 향하는 것으로 치닫는다. 이 이야기에는 많은 메타포(은유)가 담겨 있다. 신비로운 능력을 가진 유리새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유리새를 아끼고 사랑했지만, 타인의 시선 때문에 유리새를 배신한 소년은 유다의 형상으로, 그리고 유리새를 시기하고

금기시했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이브와 아담, 그리고 오늘날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 불신으로 가득 찬 우리의 민낯을 보여주는 듯하다. 그래서 읽는 동안 마음이 무거워지며, 머릿속에 질문이 맴돈다. 내가 소년이었던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 유리새를 시기하지 않았을까? 사람들처럼 어둠의 숲으로 가지 않았을까……. 이 이야기의 결말은 유리새의 희생으로 이제껏 어떤 빛조차 스며들지 않았던 숲이 밝아지는 것으로 끝난다. 하지만 이러한 밝은 결말에도 죽음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한 유리새의 모습과 순간마다 어둠의 숲으로 가는 일상 속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다.

두 번째 이야기인 ‘많이 더 많이’는 더 좋은 것을 계속 갖고자 하는 탐욕에 대한 이야기이다. 인간은 누구나 만족할 줄 모르고, 그칠 줄 모르는 탐욕을 갖고 있다. 누구도 자신이 탐욕적이지 않다고 자부할 수 없을 것이다. ‘덕’이 사는 마을 사람들 역시 그렇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만큼 타인에 대한 의심도 많아 마을에서 허드렛일을 하며 욕심 없이 사는 덕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자신의 집에 들이지 않는다. 그런 마을 사람들은 벽돌집보다 자신의 물건을 과시하기에 안성맞춤인 유리집에 빠져서 너

우리가 가진 탐욕,  
어둠의 숲으로 향해 걸어가는 우리에게  
잠시 멈춤의 시간을 주는  
겨울같은 책

도나도 유리집을 짓고, 다른 이에게 과시하기 위해 많은 물건으로 가득 채운다.

첫 번째 이야기인 '유리새'와 두 번째 이야기인 '많이 더 많이'는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두 이야기 모두 사람들이 가진 '탐욕'을 보여주고 있다. 책을 읽는 우리는 누구나 어둠의 숲으로 가는 사람들과 유리집에 갇힌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이 마을 사람들과 같이 다른 형태의 어둠의 숲으로 향하는 것이 아닌지, 유리집에 갇힌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내가 향하는 곳과 소유한 것은 탐욕이 아니라 소중한 것이며, 애착이라고 여기며 우리 스스로 탐욕적이지 않다고 여기고 있는 건 아닐까? 또한 이 두 이야기에는 '유리새'나 '딕'과 같은 구원자 또는 조력자가 존재한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구원자인 유리새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조력자인 딕의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탐욕의 끝에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함을 암시하고 있다. 작가는 조력자인 딕을 처음부터 순결무구한 인간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인간 누구나가 그러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딕 역시 마을 사람들과 같이 돈을 모아 새 유리집을 짓겠다는 욕심이 있었지만, 자

신의 낡은 집에 있는 오래된 낙서들과 흔적을 통해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새 유리집이 아닌 지금 자신의 낡은 집에 애착을 갖고 만족하게 된다. 이는 딕이 그칠 줄 모르는 탐욕을 스스로 끊어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작가는 탐욕을 스스로 끊을 수 있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짐작해 본다.

세 번째 이야기인 '한 달이 지나면'은 '키 작은 아이'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엄지공주처럼 아주 작은 아이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림을 잘 그리고, 음식을 잘 만들고, 노래까지 잘한다. 이런 아이의 달란트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누구나 키 작은 아이를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고자 한다. 사람들에게 대한 짐작 때문에 아이는 한 달 후에 만나자는 약속을 한 채 문을 꼭꼭 잠그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사람들은 한 달 동안 키 작은 아이를 기다리며 처음에는 짜증과 분노를 내뿜었지만 조금씩 키 작은 아이가 지녔던 장점들을 하나둘씩 배우고 나눈다. 그러자 그들은 서로의 말을 잘 들어주게 되고, 키 작은 아이에게 받은 그림을 서로 바꿔서 걸게 되고, 맛있는 음식을 해서 나누고, 키 작은 아이의 노랫소리 대신 바람결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를 사랑하게 된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비법이 돈이나 명예가 아니며, 아주 작은 것이며, 쉬운 일이라는 것을 깨우치게 한다. 주변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음식을 나누고, 자연의 소리, 아름다움에 귀 기울이는 것, 이것만으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왜 이 작은 일들은 어려워하고, 하지 못하며 불행에 빠지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네 번째 이야기인 '사랑하니까'는 나무를 심는 '아빠'와 '아이', 그리고 '낮선 이방인'이 등장한다. 아빠와 아이는 섬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풀과 나무들을 심는다. 섬사람들 역시 아빠와 아이들이 심은 풀과 나무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 그러던 어

사람들은 더 새롭고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조금도 쉬지 않고 바삐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오직 망원경 속에서 본 것들을  
하나라도 더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야만  
자신들이 망원경 속에서 본 사람들과  
같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_p.132

느 날, 낯선 이방인이 향기로운 꽃을 찾아섬으로 들어  
오고, 섬사람들의 욕심을 자극하여 향기로운 꽃을 찾아  
섬을 모두 파헤치게 한다.

네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욕심이 가득하고, 절제  
할 수 없으며, 물질을 채워 그것이 행복이라고 믿는 우  
리들의 모습과 닮아있다. 그렇기에 네 이야기를 읽는 내  
내 불편한 시선을 거둘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책에는 구  
원자와 조력자인 ‘유리새’나, ‘딕’, ‘키 작은 아이’, 섬사람  
들을 위해 풀과 나무를 심는 ‘아빠’와 ‘아이’가 있으며,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절제와 희생, 사랑의 가치  
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려준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  
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로마서 1장 17절)고 했다.  
네 이야기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물질이 아닌 믿음으로  
향하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 탐욕을 끊고, 절제와 사랑  
을 배워나가게 한다. 이 짧은 네 개의 이야기가 읽는 독  
자의 마음 한 곳에 넓게 자리 잡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  
일지도 모른다. 다만, 힘이 없는 약지 손톱 끝에 박힌 작  
은 가시처럼,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 마음 한 구석

에 자리를 차지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 신경  
이 쓰여서,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



#### 글 | 광영미

현재 성균관대학교에서 그림책 창작을 가르친다.  
그림책과 동화책의 글을 쓰고 있으며, 그림책 연구  
를 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조선의 왕자는 무얼 공  
부했을까?’, ‘코끼리 서커스’, ‘스스로 가족’, ‘초원을  
달리는 수피아’ 등이 있다.